

계영배 원리

곽홍인 | 305호 백자실 | 18:00~18:30

계영배(戒盈杯)는 ‘가득 참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으로 절주배(節酒杯)라고도 합니다. 계영배가 일반적인 술잔과 다른 점은 잔 내부 중앙에 원통형 관(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통형 관은 잔에 어느 정도 술이 채워지면 잔 밑으로 술이 빠져나가도록 제작(사이펀 현상)되었습니다. ‘사이펀’이란 대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액체를 하나의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옮기는 데 쓰는 관을 말합니다.

계영배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5점,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2점, 총 7점이 있다. 이 중 4점의 계영배에 대한 C.T촬영 결과, 원형 관의 형태에 따라 관형과 종형으로 구분됩니다.

종형 계영배는 잔에 술이 한 번 빠져나가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잔 내부의 술은 빠져나가더라도 이중 관 사이 공간과 내부 관에 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술을 채우면 수압 차에 의해 내부의 술이 잔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관형 계영배는 종형 계영배와는 달리 잔에 술이 한 번 빠져나가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면에서부터 외면으로 부착된 관이 하나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계영배가 사이펀 원리를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계영배 원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과학적인 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관형 계영배



그림 2. CT 사진(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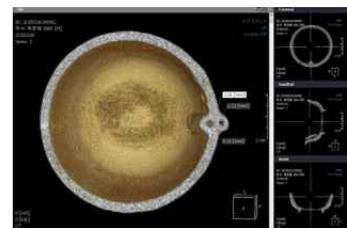


그림 3. CT 사진(평면)



그림 4. 종형 계영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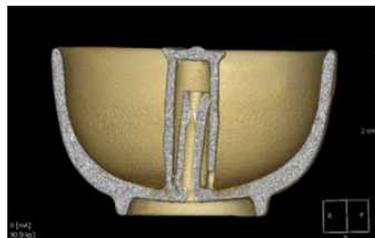


그림 5. CT 사진(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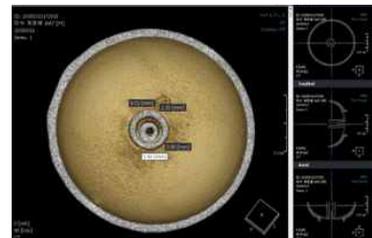


그림 6. CT 사진(평면)



제641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6월 5일)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자리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박경은 | 121호 특별전시실 | 18:00~18:30

첫인상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관문인양 어둡고 좁은 터널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다다른 곳. 사방으로 심연의 우주가 펼쳐진 듯한 고요한 공간에 두둥실 떠있는 존재들이 마치 행성같습니다. 여기저기 한줄기 빛처럼 환하게 빛나는 얼굴들이 천천히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갈수록 거칠거칠한 화강암의 표면에서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확 고한 누군가의 모습이 강한 아우라를 뿜으며 살아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돌과 하나된 생명을 목도하는 것 같은 신기함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감출 수 없는 기쁨에 찬 얼굴이, 또 두건을 뒤집어쓰고 평온함에 잠겨든 얼굴, 그리고 무거운 고개를 떨구고 무언가에 몰입한 얼굴들 그 하나하나가 부족함이 없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가슴을 두드립니다. “영월 창령사터 오백나한-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특별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나한 석조상들은 ‘반질하고 단단한 거울처럼 견고한 내면의 고요함 속에’ 있고, ‘떠오르는 달덩이와 같은 원만하고 빛나는 기쁨에 가득 차’ 있으며, ‘따뜻한 햇살같은 안온한 평화 속에’ 있고, ‘돌덩어리처럼 무겁게 진지한 몰입 속에’ 있습니다.

현대미술과 문화재의 본격 컬래버레이션

불교佛敎의 진리를 깨우친 성자 ‘나한羅漢’이 일상 속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와 마주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춘천박물관의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전을 관람객의 사랑과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2018년의 전시로 선정하여, 그 서울전을 더욱 새로워진 연출로 선보입니다. 전시 1부는 “성속聖俗을 넘나드는 나한의 얼굴들”이라는 큰 주제 아래 국립춘천박물관의 전시의 개관概觀을 유지했고, 2부 전시는 “일상 속 성찰의 나한”이라는 큰 주제 아래 중고스피커와 창령사蒼嶺寺 나한상羅漢像으로 구성한 ‘도시 일상 속 성찰하는 나한’을

새롭게 연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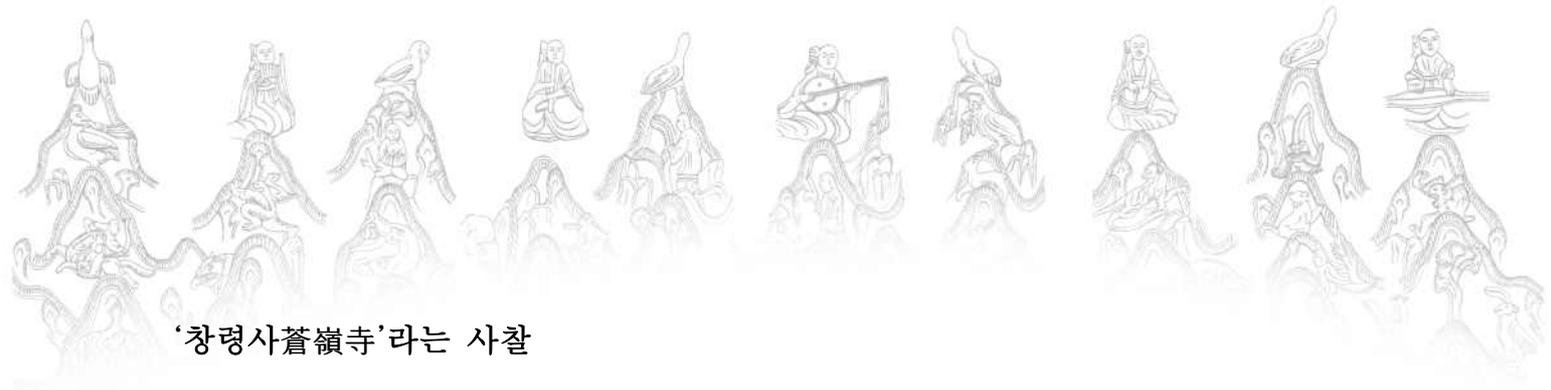
1부 전시 공간은 전시실 바닥을 옛 벽돌로 채우고 그 위로 여러 개의 독립적인 좌대를 세워서 창령사 나한상 32구를 배치하여 연출하는 한편, 2부 전시 공간은 스피커 700여 개를 탐처럼 쌓아올려 그 사이에 나한상 29구를 함께 구성하여 도시 빌딩숲 속에서 성찰하는 나한을 형상화하였습니다. 1부 주제인 ‘자연 속의 나한’과 2부 주제인 ‘도시 속의 나한’의 주제가 대조적이면서도 ‘자아 성찰’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연출함으로써 도시의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아성찰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전시는 국립박물관과 설치작가 김승영이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거쳐 과거의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협업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창조적 문화컨텐츠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행보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림 1. 수행하는 나한과 가사를 두른 나한, 고려말 조선초, 강원도 영월 창령사 터 출토, 높이 37.9cm(왼쪽),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그림 2.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 전시전경 (작품설치 김승영)



‘창령사蒼嶺寺’라는 사찰

창령사 터 오백나한상은 2001년 5월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에서 주민이 그 일부를 발견하면서 오백여 년 잠들어있던 나한상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가 2001~2002년에 정식으로 발굴조사하면서 완형 64점을 포함하여 317점의 나한상과 불보살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터에서는 중국 송나라의 동전 승녕중보崇寧重寶와 고려청자 등이 함께 출토되어 창령사가 고려 12세기 무렵에 세워졌던 사찰임을 확인하였고, "창령사蒼嶺寺" 글자가 새겨진 기와를 통해 절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창령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481년, 1530년)과 『동여비고東輿備考』(1682년경) 등의 기록과 발굴품이 전하여 고려 중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굴된 나한상들은 국립춘천박물관의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복원작업을 거쳐 2018년 국립춘천박물관 특별전과 이번 전시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전시품으로 본 백제의 국제교류

김미경 | 106호 백제실 | 19:00~19:30

백제, 바닷길을 열다!

백제는 고대국가 체계를 갖추기 전부터 주변지역과 밀접한 교류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진서晉書』에 따르면 백제는 근초고왕 27년(372)에 중국과 정식으로 교류한 것으로 전합니다. 한성백제漢城百濟 시기 근초고왕대 이전에 이루어졌던 중국과의 교류 주체는 마한, 백제를 포함한 다양한 세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도입된 서진西晉의 시유施釉 동전무늬도기[錢文陶器]는 당시 중국과의 밀접했던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몽촌토성, 풍납토성, 홍성 신금성 유적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다만 서진과의 직접적인 교역보다는 낙랑의 동이교위(東夷校尉: 중국 위진남북조 시기에 요동 지방에 설치되었던 관직)를 매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4세기 중엽 백제는 고구려와 대립하면서 중국 동진과 국교를 맺고 바다 건너 왜(倭)와도 교류를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중국으로 많은 물품이 수입되었는데, 이는 중국과의 교역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낙랑의 멸망에 따른 낙랑계 유민의 유입으로 촉진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출토되는 중국제 청자나 청동 자루술[釵斗]과 같이 자신의 권위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위세품威勢品으로, 주로 지배계층과 관련이 있는 성곽이나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중반에 이르면 백제의 수도인 한성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중국제품이 발견되는데, 도자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백제의 중앙정부가 성장함에 따라 지방 세력에게 하사한 위세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주 법천리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 자루술과 더불어 양모양청자가 대표적이며, 이는 중국 남경 상산象山 7호묘에서 나온 월주요제의 그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외에 천안 화성리와 오산 수청동 유적에서 출토된 목이 긴 청자[盤口壺]와 서울 석촌동, 익산 입점리의 청자네귀단지는 동진대의 유물과 유사합니다. 공주 수촌리에서 나온 중국제 청자와 흑자 또한 역시 남조南朝와 관계가



있는 유물입니다.

왜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와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삼국시대 왜와의 교류는 처음부터 삼국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왜가 한반도 지역의 선진기술 습득과 한반도를 통한 중국문화의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역의 형태나 교역지가 변화를 보이는데, 지리적으로 근접한 가야나 백제와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제는 4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왜와의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근초고왕 27년(372)에 왜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과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아신왕阿莘王 6년(397)에 왕이 왜와 우호관계를 맺고, 12년(403)에는 왜국의 사신이 백제를 방문한 것으로 왜와의 공식적인 교류관계가 등장합니다. 이후 백제는 여러 차례 왜국에 사신을 파견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외교관계는 왜국의 요청과 함께 삼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왜국에는 곱아가리단지, 두귀단지, 새발무늬토기 등의 마한계 토기류와 기와와 벽돌, 부뚜막 시설, 대벽건물大壁建物, 고리자루큰칼, 굴식돌방무덤 등 생활 관련 자료부터 위세품과 장송의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백제 문물이 전래되었습니다. 반대로 왜의 문물 역시 백제로 들어왔는데, 한성시기에 해당하는 자료는 서울 몽촌토성의 스에키[須惠器: 한반도의 백제와 가야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 만들어진 회청색 토기로, 기존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토기들보다 단단함]와 청주 신봉동의 하지키편[土師器片: 일본 고분시대 4세기대에 발달한 토기로 산화소성으로 표면이 적갈색이다]이 알려져 있으며, 웅진·사비시기에는 상당수의 스에키가 발견되고 있어서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성시기의 백제는 마한 소국을 차례로 병합하는 단계에 따라 주변국과의 교류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풍납토성에서 발견되는 가야 및 왜계토기는 가야를 통한 왜와의 교섭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출토된 칠지도는 백제가 왜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근초고왕대부터 이루어진 중국과의 국교 수립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정치 교류 뿐 아니라 새로운 문물을 들여오는데 기여한 바가 크며, 백제문화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였을 것입니다.

양산 출토 반가사유상

권강미 | 301호 불교조각실 | 19:00~19:30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옛 양산군 물금면 어곡리)에서 발견된 이 상은 삼국시대 소형의 반가사유상 가운데 뛰어난 조형성을 보여줍니다. 상 전체는 한 번에 주조했으며, 허리 높이까지 내부가 비어 있습니다. 도금은 모두 벗겨졌고 표면 곳곳의 부식도 심합니다. 상 전체에는 주조할 때 발생한 기포가 많이 관찰됩니다.

머리에는 정면과 좌우 측면에 커다란 장식의 보관寶冠을 착용했는데, 보관 중앙에는 둥근 장식 위에 화불化佛로 추정되는 형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어깨 위에는 끝이 둥글게 말린 수발垂髮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눈은 주조한 다음 세부를 선각線刻하였으며, 오른쪽 뺨에 댄 손가락 마디는 부드럽게 휘어진 모습입니다. 상반신에는 목걸이 장식 흔적은 없으며 팔뚝과 팔목에 각각 굵은 팔찌를 착용했습니다. 군의裙衣는 이중으로 걸쳤으며, 둥근 의자 뒷면은 삼국시대에 제작된 다른 반가사유상과 달리 좌우대칭의 틀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흘러내린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왼발 아래에는 일반적인 연꽃 모양의 연화좌蓮花足座가 아닌 연잎을 조형화한 하엽좌荷葉座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가사유상 특유의 신체 조형을 잘 소화하였고, 자연스러운 입체감과 옷 주름의 표현 등에서 새로운 감각이 발휘된 삼국시대 반가사유상입니다.



금동반가사유상, 양산 출토, 삼국시대 7세기, 높이27.6cm, ©국립중앙박물관